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전북도에 수재의연금 기탁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이심)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도내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북도에 수재의연금 3,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심전 대한노인회장(현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이사장), 김동수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재의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15대와 제16대 대한노인회장을 역임한 이심 현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이사장은 "이 수재의연금이 지난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수재민들에게 작은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면서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완료돼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진안군은 지난 4일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코로나 19 예방수칙전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 19 예방행동수칙 ▲코로나 19 안전신고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농기계안전 국민행동요령 ▲군민안전보험 등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용품 등을 군민들에게 배부했으며,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잦은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안고원시장, 터미널 등 주변 재해취약시설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 가정폭력 적극 대응 추진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일부터 지역경찰관서를 순회, 개선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교육 및 현장출동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피해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입건 및 긴급임시조치 등을 취하는 것으로 이날 중순경부터 적용되어 적극 대응한다. 긴급임시조치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조치 등을 취하는 제도이다. 강태호 서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고활성화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지구대, 태풍대비 탄력순찰 진행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도동지구대(대장 박홍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관내 침수우려지역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탄력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또 다시 집중호우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우려해 진행한 것으로, 관내 하천 등 침수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토사 유출지역을 확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상·하수도분야 국가예산확보 숨은 주역

도 물환경관리과 김신겸 주무관... 올해보다 42.1% 증액, 환경부에 지역 특성 적극 건의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하수도분야 국비 1,704억원이 반영돼 올해 1,199억원 대비 505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상하수도시설확충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 재정 여건이 감소 되고 중앙부처 대면 활동 제약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분야에서 1,704억원이라는 괄목할만한 예산확보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숨은 주역은 도 물환경관리과 상·하수도분야 예산을 총괄하는 김신겸 주무관이다. 김 주무관은 특유의 편안함과 친근함을 무기로 환경부 생활하수와, 물이용기획과 등 담당부서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애로사항 등을 세세히 설명하고 2021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했다. 우선 상수도 분야에서 작년 인건 봉은 수돗물 사태 및 올해 유충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예산확보에 특히 공



김신겸 주무관

을 들인 결과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사업 반영되게 됐다. 당초 환경부의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계획은 시·군 위주로 예산반영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도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건의해 전 시·군이 반영됨에 따라 실시간 수질감시 및 신속한 대응 인프라 조기 구축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하수도 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농어촌지역 하수도 실정 및 애로사항과 핵심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해당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주 1회 이상 환경부 하수도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간 결과 올해 대비 57.5%가 증가된 하수도 국비 반영 성적을 거두게 됐다. 전경식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1,704억원의 상하수도예산 반영 결과는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예산 확보에 매진해준 김신겸 주무관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김 주무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신겸 주무관은 "아직 내년도 국가예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목록별로 다시 정리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함께 고생한 과장님 및 팀원들 그리고 시·군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보화를 통한 배움과 열정의 '결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전북 정보화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등 상 4개 수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제10회 전라북도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1개 시·군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3일부터 6일 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경진부문은 블로그 포스팅,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UCC,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등이다. 남원시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는 정려상, 단체UCC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를 제외한 3개 부문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지난해와 달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를 통한 배움과 열정으로 남원시



정보화 농업연구회 회원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과 배움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디펜스·마스크상사 이후수 대표, 고향 백구면에 마스크 10만개 기부

전주시에 위치한 디펜스·마스크상사 이후수대표는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고향 백구면에 마스크 10만개를 기부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 디펜스·마스크상사 이후수 대표는 백구면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최근에는 백구면에 지정기탁금 1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이어오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마스크상사 이후수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향의 어르신들이 먼저 생각나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부된 마스크는 백구면 주민들과 마스크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어져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신형선 백구면장은 "고향 친구인 이후수 대표가 성공해 고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어 감사할 따



름이며 지역의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박태기 기자

진안 상가막 마을, 농촌 치유지원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박차

진안군은 지난 4일 '농촌 치유지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진안을 상가막 마을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정신적·육체적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특히 코로나 대응 자연을 찾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농촌 자원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 펜션 리모델링이 완료돼 힐링과 휴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상가막 마을에서는 지속적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독재봉 달밭길 걷기, 감투령 할미굴 촛불 명상, 짚레깅 돌레길, 숲속 쉼터 등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고유 식문화와 찾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 게 생각을 이끌어 내는 퍼실리테이션 의견 도입법을 통해 울무떡, 천렵국 등 옛날 음식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한편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치유 지원 상품화 역량개발과정' 비대면 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가막 마을은 사방댐을 시설하지 않고 돌과 대나무를 살리는 등 상가막의 농촌다움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단합하여 지속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가막 마을 이장 김금식씨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치유공간 개발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재방문 하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출신 강봉구·강병국씨 옥천장학회에 2000만원 기탁

명품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올해에도 장학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구림면 출신 강봉구, 강병국 씨는 순창군의 지역 인재양성과 옥천인재육성의 어려운 학생 급식비로 썩달라며, 2,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강봉구 씨는 20년 전부터 순창지역 장애인 단체와 다문화 행사 등에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봉구 씨는 "순창군에서 나와 자라 순창군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후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이사장은 "지역 교육발전에 관심을 갖고 통 큰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우리지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뜻 깊게 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정읍경찰, 신입경찰 301기 졸업식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경찰학교가 아닌 정읍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서장,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경찰 301기 구해술, 이보람 순경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열체크 및 손소독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이 졸업한 구해술, 이보람 신입경찰관은 지난 2020년 1월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약 4개월간 기본교육을 받았고, 5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기초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최정에 경찰관이 되기 위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졸업장 수여에 이어 꽃다발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구해술 순경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신입경찰관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서장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첫째 경찰생활하면서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 것, 둘째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경찰관이 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진장소방서, 추석 벌 쏘임 사고에 주의 당부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추석을 앞두고 4일부터 벌 쏘임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추석 벌 쏘임 제로를 위해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119구급대가 이송한 벌쏘임 환자는 1만6751명(전북 1천 390건)에 달하며 지난 3년간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31명으로 이 중 추석 전 벌초작업 중?사망한 사람이 10명으로 32.3%를 차지했다. 벌초 기간에 발생하는 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벌초 전에는 무덤 주변에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지점에서 말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작은 구멍 앞에 흙덩이가 쌓여있는 경우 장수말벌 집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변을 조심하 살피도록 하고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 제거 전문가에게 신고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벌초나 성묘를 해야 한다. 또한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 땐 밝은색 계열의 옷과 췌이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 피부를 많이 가리는 옷을 입는 것도 벌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다.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는 피하는 게 좋다. 박덕규 서장은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벌초에 나서달라"며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1시간 내 병원 치료를 받아야한다"며 119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홍보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불특정 다중밀집지역인 고창 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대합실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홍보에 나섰다. 랩핑홍보는 기존의 영상홍보와 달리 벽, 계단, 기둥 등 랩을 씌우듯 홍보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번 랩핑 홍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인 만큼 많은 군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 접근하고 자발적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형화재감지기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씩 비치하고 단독형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하도록 법적 의무화됐다. /고창=김영식 기자